

2019 제24회 KBS119상 수상자  
**공무국외 여행결과보고서**

(2019.04.23. ~ 04.28)



**용 산 소 방 서**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제24회 KBS 119상 수상자 해외 봉사활동 및 문화체험
- 여 행 자 : 2명(지방소방위 김OO, 지방소방위 김OO)
- 여 행 국 : 베트남(호찌민,무이네,미토)
- 여행기간 : 2019. 4. 23(화) ~ 4. 28(일), 4박 6일
- 경비부담 : KBS(전액부담)

| 항 목          | 검 토 결 과 (■표시)   |
|--------------|---|
| 내 용 상<br>검 토 |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 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 형 식 상<br>검 토 |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br>(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br>(귀국 후 15일 이내)                        |
| 증빙자료         |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
| 사후관리         |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예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br>(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 검토의견         |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

# 국 외 여 행 개 요

|   |   |                           |            |             |                    |
|---|---|---------------------------|------------|-------------|--------------------|
| <b>가. 여행개요</b>  |   |                           |            |             |                    |
| <b>여 행 국</b>  | 베트남   | <b>여행도시</b>               | 호찌민,무이네,미토 | <b>방문기관</b> | 구찌고아원,호치민우체국,노틀담성당 |
| <b>여행목적</b>   | <b>분 야</b>  | ※ 제24회 KBS119상 수상자 공무국의여행 |            |             |                    |
|   |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인명구조 활동에 헌신한 구조·생활안전대원을 격려하고,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KBS가 1996년 공사창립일을 맞아 제정·시행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수상자들이 해외여행을 통한 봉사활동 및 문화체험 기회를 주고자 함 |                           |            |             |                    |
| <b>여행기간</b>   | 2019년 4월 23일 ~ 2019년4월28일(4박 6일)  |                           |            |             |                    |
| <b>여 행 자</b>  | <b>소 속</b>  | <b>직 급</b>                | <b>성 명</b> | <b>비 고</b>  |                    |
|   | 용산소방서   | 지방소방위                     | 김○○        |             |                    |
|   | 광진소방서   | 지방소방위                     | 김○○        |             |                    |
|   |   |                           |            |             |                    |
|   |   |                           |            |             |                    |
| <b>나. 여행결과 요약</b>   |   |                           |            |             |                    |
| 더운나라로의 여행이라 옷이 가벼워 배우자와 함께라도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던 베트남 여행이었지만,우리를 포함한 수상자들은 본인의 짐가방 보다 더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씩을 더 준비했다 한 개의 가방에는 고아원에 후원해 줄 물품을 준비해서 함께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다.‘아이들이 좋아할까? 하는 기대감까지 담아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베트남 문화탐방 아이들과 풍선아트,축구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 했으며 특히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맨발로 공을 찰 때 서로 본인의 신발을 벗어 주던 모습은 훈훈할뿐만 아니라 감동 그자체였다,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닌 봉사활동을 통한 119 사랑의 마음을 전한 의미 있는 연수였던 듯 하다 |   |                           |            |             |                    |
| <b>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b>  |   |                           |            |             |                    |

<첨 부 :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 제 목 : 제24회KBS119상 봉사활동 및 해외시찰

**□ 출장 목적**

- 해외문화시찰을 통한 수상자들의 특별 격려 및 베트남 문화 탐방
- 베트남 호치민 지역 구찌 고아원 봉사활동을 통한 119의 헌신과 사랑실천

**□ 출장 기간 : 2019. 04. 23(화) ~ 04. 28(일)**

**□ 출 장 자 :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 지방소방위 김 종 준 등 2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 서울 용산소방서 | 지방소방위 | 김종준 |     |
| 서울 광진소방서 | 지방소방위 | 김종수 |     |

**□ 장 소 : 베트남(호치민,무이네,미토)**

- 정 의 :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는나라 나라
- 개 관 :
  - 정식명칭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국가형태 : 사회주의 공화국
  - 면적 : 330,341km(일본정도의크기)
  - 인구 : 9,742만(2015년 현재)
  - 수도 : 하노이
  - 종족구성 : 54개 종족으로 이루어진 국가(킨족이 종족의 86% 차지)
  - 종교 : 불교12%,천주교7% 인구의 80% 무교(사회주의국가 영향때문)
  - 기후 : 아열대기후로 4월 기온이 33~35° 정도
  - 주요자원 : 쌀 고무 새우 커피 등

○ 여행을 떠나기전

- 제24회 KBS119상 수상자는 전국 소방공무원 21명으로 구성된 대원들로 95년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96년 KBS 공사 창립일에 맞춰 매년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119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수상직후 함께 올헤는 베트남으로 호치민원정대란 이름으로 부부동반하여 38명의 119대원들과 그리고 kbs pd 등 민과관이 함께 떠나는 연수였으며, 4박6일간의 베트남 원정대로서 연수동안 KBS119상 수상자로서 자부심과 잘해야된다는 부담감으로 떠나는 연수였다. 약간의 긴장과 연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송직후 우리 38명의 베트남 원정대는 인천공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 제24회 「KBS119상」의 개요

- 17개 시도 우수 소방공무원 선발
-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 선 119구조 생활안전대원들의 선발하여 포상하는 상



□ 출장 일정

| 일 정      | 일 정 내 용   |   | 비 고                          |
|----------|---|---|------------------------------|
|          | 사전계획  | 실제 수행내용   |                              |
| 4. 23(화) | · 17:00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집결<br>· 19:25 인천국제공항 출발<br>· 22:40 호치민 국제공항도착,베트남입국<br>수속후 현지가이드 미팅<br>· 호텔투숙(호치민 라마나호텔) | · 17:00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집결<br>· 19:25 인천국제공항 출발<br>· 22:40 호치민 국제공항도착,베트남입국<br>수속후 현지가이드 미팅<br>· 호텔투숙(호치민 라마나호텔) |                              |
| 4. 24(수) | · 구찌고아원 봉사활동(09:00~12:00)<br>· 전신마사지 90분<br>· 무이네 사막으로 이동 일몰이 신비함과 함께 사막 지프투어                                 | · 구찌고아원 봉사활동(09:00~13:00)<br>· 베트남전 당시의 상황 구찌터널체험<br>· 전신마사지 90분(힐링)<br>· 무이네 무영탄호텔 투숙                        | 봉사활동<br>1시간<br>추가로<br>사막투어연기 |
| 4. 25(목) | · 호텔 전용비치에서 자유시간<br>· 새벽 일출 지프투어-화이트샌둔,레드샌둔,안쪽과 바닷가투어<br>·<br>·<br>·  | · 호텔 전용비치에서 대원들과의 우정을 통한 수구 및 수영대회 및 야간 부부동반 자유토론 및 소방의 미래에 대한 토론<br>· 무이네 무영탄호텔 투숙<br>·<br>·<br>·            |                              |

| 일 정      | 일 정 내 용   |  | 비 고 |
|----------|---|--|-----|
|          | 사전계획  | 실제 수행내용  |     |
| 4. 26(금) | · 무이네 명물 와인캐슬 방문<br>· 중식후 호치민으로 이동(4시간30분소요)<br>· 호치민우체국,노틀담 성당 관광후 석식-사이공강 크루즈 디너<br>· 호치민 라마나 이동                            | · 새벽4시 무이네 명물 사막지프투어 (화이트샌둔,레드샌둔 안쪽과 바닷가투어)<br>· 요정의 샘<br>· 무이네 명물 와인캐슬방문<br>· 사이공강 크루즈 디너<br>· 호치민 라마나 호텔 투숙  |     |
| 4. 27(토) | · 체크아웃<br>· 구찌로이동-베트남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당시 베트남 사령부 현장체험중식-무제한 삼겹살<br>· 호치민 이동후 전쟁기념관 방문<br>· 석식후 호치민 공항 이동<br>· 00:10 비행기 탑승 | · 07:00 체크아웃<br>· 버스로 2시간 이동 미토메콩강 지역 민속마을 구경 및 쪽배 체험<br>· 버스로2시간 이동 후 호찌민 이동<br>· 호치민우체국,노틀담 성당 관광<br>· 호치민 전쟁기념관 관광<br>· 석식후 호치민 공항이동<br>· 00:10 아시아나 비행기 탑승 |     |
| 4. 28(일) | · 한국시간 오전 07:10분 인천국제공항 도착<br>· 전대원 기념사진 촬영   | · 한국시간 오전 07:10분 인천국제공항 도착<br>· 전대원 기념사진 촬영  |     |

□ 출장 수행 내용

○ 호치민 국제공항도착,호텔투숙(2019.4.23.(화), 22:40~12:00)-1일차

-호치민 라마나 호텔 투숙

○ 호치민 구찌고아원 봉사활동(2019.4.24.(수), 09:00~13:00)-2일차-오전

-호치민 구찌고아원 의류 전달식 및 사랑의 바자회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축구,풍선아트, 다양한 놀이를 통한 119사랑실천

· 구찌고아원은 호찌민에서 1시간정도 떨어진 시골의 고아원으로 처음에 방문했을 때 원장님등 직원들의 따뜻한 환대와 함께 더운지역이라 시원한 아이스 사탕수수 음료를 주어서 시원하게 봉사활동을 할수 있었다. 우리 40여명의 부부동반 대원들과 배우자들 한국에서 가져온 20여개의 캐리어와 라면상자 30여개의 상자에 들어있는 의류, 문방구, 신발등을 꺼내어 아이들과 함께 웃도 입혀주고 또한 각자 봉사활동때 부여된 임무, 축구,풍선아트 제기차기 등 재능기부를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고 고아원 운동장에서는 한국119대원과 베트남 17세가량의 중·고등학생과 미니축구게임을 하였다. 한국에서 들었던 대로 아이들은 대부분 맨발로 축구를 하고 있었고, 경기를 구경하던 청담당자와 KBS피디는 본인의 운동화를 기꺼이 벗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었다 나도 119모자를 선물하였다. 박항서 감독의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아이들의 수준은 수준급이었으며 결국 119대원과 베트남과의 축구 친선경기는 3:2로 베트남의 승리였다. 오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119대원의 특유의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엿볼수 있는 봉사활동시간이었던듯 하다. 우리24회 대원들은 호치민 구찌 보육원 봉사활동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인 후원을 통한 진정한 한국119봉사정신을 실천할 예정이다



베트남 고아원 의류 봉사



한국119·베트남 자매결연



한·베트남 축구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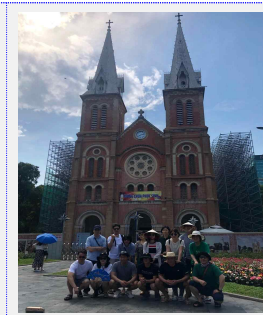
○ 베트남전 당시의 구찌터널체험(2019.4.23.(화), 14:00~17:00) -2일차(오후)

- 베트남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며,당시 베트남 사령부 현장체험  
- 구찌터널을 만들게 된 이유 등

· 호찌민의 명소의 하나인 구찌터널은 호찌민에서 서북쪽으로 약 75km 가량 떨어진 구찌라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유명한 땅굴이다. 처음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구찌터널을 방문했을 때 보기전에는 우리나라 땅굴을 연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터널을 구경하여 보니 전쟁이라는 인류의 잔인한 역사가 구찌터널이라는 관광명소를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베트남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터널을 만들었다 한다. 우리는 자연경관이 좋은 구찌 터널을 시찰하면서 직접 터널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총길이는200km 서울에서 구미정도의 길이라 하였다.터널은 밤마다 손가락으로 20년에 걸쳐 파다 하니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낄수 있었으며, 터널을 직접 체험하여 보니 전진만 가능하고 후진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터널안에서 미군들이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했으며, 대부분 베트남들에게 사살되었다. 이 터널은 베트남의 지형지물과 그들의 날선한 체형을 충분히 이용하여 전투를 승리할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한듯하다.



구찌터널 체험장면



울창한 구찌터널 경관



베트남전 당시 탱크에서

○ 호치민 전신마사지 90분 (2019.4.24.(수), 18:00~19:30) 2일차(저녁)

- 베트남 전통마사지로 따뜻한 돌로 온몸을 이완시켜주는 힐링체험  
- 그동안 화재·구조현장에서 지친 심신회복기능 위주의 마사지

· 호찌민시내에 위치한 베트남전통마사지로 스톤(돌)을 이용하여 등을 맞사지 하였는데 신기하게도 적당한 온도로 맞사지를 하였는데 어떻게 돌로 온도조절을 할수 있는는지 신기하였다 또한 마사지를 마친후 기본팁 3달러를 주었는데 별도로 한국돈을 요구하여 1,000원을 주었는데 매우 만족한듯했다 천원을 우리나라에서 주었다면 그리 만족하지는 못했을 듯 하다

○ 무이네 롯데마트 장보기 (2019.4.25.(목), 09:00~12:00) -3일차(오전)

- 베트남 무이네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 선물 및 자유로운 장보기
- 베트남 3일째 오전 호텔에서 조식을 마치고 부부동반 3커플 베트남만수르(전남 안동진, 경기도 김광중 6인 3커플이 택시를 타고 무이네 근처 롯데마트로 출발하였다. 오전 수영장에서 자유시간을 보내려 했으나 한국에 없는 베트남 인기있는 상품을 인터넷으로 검색 후 쇼핑을 하기로 하였다. 택시비는 16천원정도 나왔으며 베트남 현지돈(동) 32만동으로 계산을 하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카드 및 달러는 통용이 안되었다. 무이네 호텔에서 롯데마트까지는 25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주변경관은 바닷가와 아직 개발이 진행중인 곳으로 구분이 되었다. 택시기사는 2시간 후에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호텔로 갈때에도 왔던 택시를 타면 되는 듯 했다. 우리는 3층에서 노니비누, 베트남 커피 등 인기있는 품목을 카트에 가득 채웠다. 약간 너무 많이 샀나 걱정도 했지만 20만원정도 계산이 되었다. 아직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우리 일행은 뿌듯한 마음으로 올 때 탔던 택시로 무사히 호텔로 돌아올수 있었다.

○ 무이네 무영탄호텔 자유시간 및 토론 (2019.4.25.(목), 14:00~18:00) -3일차(오후)

- 호텔 전용 비치 및 수영장에서 자유시간 및 힐링타임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소방에 대한 미래지향적 소방의 발전방향 모색
- kbs119상은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119구조,화재 진압대원을 위한 선발·포상하는 상으로 각 지역에서 최고의 소방관을 선발하는 상이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1996년부터 KBS가 시상하는 상으로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인 사명감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구호하고 보호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소방의 위상을 높이는 대원들로 본인가족보다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대원들을 위해서 잠깐의 힐링의 시간이 필요한듯하다. 3일간 시상식 및 봉사활동으로 지쳐있는 대원들에게 모처럼만의 자유시간이었지만, 항상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습관때문인지 휴식이 어색한 듯 보였으며 시간이 지나자 여행동안의 차량팀 백두 한라팀으로 나누어 수구 및 수영대회를 하였고 모두 즐거운 힐링의 시간이 되었던 시간이었으며, 또한 비치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소방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에 대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토론한 시간을 보낸 알찬 하루였다.



백두대한라 수구시합      자유로운 소방미래 토론      수영장 힐링타임

○ 무이네 사막 지프투어(2019.4.26.(금), 04:00~09:00)-4일차(새벽 및 오전)

- 화이트샌든, 레드샌든 투어안쪽 바닷가 투어 및 일출
- 물이 마르지 않는 요정의 샘
- 새벽4시 호텔정문앞에는 지프들이 우리대원가족들을 태우고 무이네 사막으로 출발하기 위해 호텔앞에 주차하고 있었다 일찍 출발한 이유는 40분정도 차로 가야 도착할수 있는 무이네 명관광지 화이트샌든 사막에서 일출을 보기 위함이었다. 지프차량은 내가 생각했던 탱글거리는 아니었지만, 나름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운전자까지 포함하여 4명이 한차에 타고 주행을 하기 시작했다 특이한점은 계기판이 없어 속도를 알수 없지만 무척 빠르다는 느낌이었다. 새벽을 가르는 지프에 우리는 몸을 맞졌고 마치 카레이스처럼 사막을 향하여 질주하였다. 한참을 달린후 사막에 도착하였으며 모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부드러웠으며, 바닷가에서 수천년간 바람에 날려와 사막이 되었다 한다 잠시후 우리일행은 일출의 장관을 구경할수 있었으며, 일출을 마치고 또다른 사막인 레드샌든으로 출발하였다. 출발하기전 잠깐 화장실을 들렀는데 나는 노라운 경경을 구경할수 있었는데 화장실 이용자에게 1만동을 받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이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이다. 잠깐의 놀라움을 뒤로하고 바닷가 도로를 지나 잠시후 레드샌든에 도착하였는데 화이트샌든과는 다른 매력의 레드샌든,모래빛이 주황색과 붉은빛을 지니고 있어 사진이 매우 아름답게 나왔다, 사막투어를 마치고 동남아의 그랜드캐니언이라 불리는 요정의 샘에 도착하였는데 건기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 요정의 샘이라 이름을 지었다 한다. 사실 약간의 실망이었다. 작은 개천에 불과한 듯 보였으며 우리나라의 뱀사골등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장소가 관광명소라 생각하니 약간의 상업적으로 만든 장소라 생각을 하였다. 새벽관광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지프를 타고 다시 우리 숙소인 무영탄 호텔로 돌아와서 조식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준비하였다.



화이트샌든 일출      레드샌든      요정의 샘

○ 와인캐슬 방문 및 중식후 호치민 (2019.4.26.(금), 10:00~17:00)-4일차(오후)

-무이네명물 와인캐슬 방문

· 무이네 무양탄 호텔의 약간 늦은 아점을 마치고 다음장소인 와인캐슬로 향하였다 무이네에 있는 랑동 향동 와인캐슬을 방문하였는데 도착한 처음 모습은 깔끔한 정원과 성으로 만든 건물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약간의 유럽풍이라 생각을 하던찰나 가이드가 미국에서 전쟁을 하던시절 와인을 직접 가져와 저장하던 장소라는 설명으로 충분히 알수있었다 또한 건물이 진짜 성벽같이 되어 있어서 매우 볼만하였고 내가 즐겨보던 왕좌의 게임이라는 미드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와인 저장고라 그런지 에어컨 같은게 인보이는데도 엄청 시원하였다. 와인을 보관하고 있는 입구에서는 커다란 가방을 보관하고 입장하도록 되어 있었다.실제로 고가의 와인이 진열되어 있다보니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와인캐슬 안으로 들어가면 실내에서는 군데군데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으며 와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와인까지 시음할수 있었다 그리고 안내는 동굴같이 신기하게 만들어져 매우 시원하였다. 와인은 안쪽으로 돌리면서 혀로 맛을 느끼는다고 한다. 와인캐슬을 견학을 마치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현지식으로 점심을 먹고 차로 4시간 정도 이동하여 처음 도착하였던 호치민으로 출발하였다. 호치민까지는 4시간 30분정도 소요가 되었으며, 오후 5시정도 호치민 시내에 오게되었을 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퇴근시간이 겹쳐차와 오토바이로 가득차 있었다. 사실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놀라게 있는데 그많은 오토바이를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베트남에는 4천만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있는데 도로를 가득메운 오토바이는 어디로 향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서울 시내에 차가 많은것처럼 오토바이가 넘쳐흘렀다. 가이드말에 의하면 1일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0명정도에 이를정도로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듯했다. 처음 숙박했던 호치민 라마나 호텔숙소로 도착하였으며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호텔에 짐을 풀로 사이공강 선착장으로 출발하였다



와인캐슬에서 단체사진



와인 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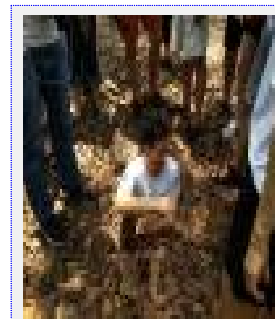


와인캐슬 저장창고

○ 와인캐슬 방문 및 중식후 호치민 (2019.4.26.(금), 18:00~21:00)-4일차(저녁)

-사이공강 크르즈 디너를 통한 대원들간의 화합과 힐링투어

· 호텔에서 짐을 풀고 다음 장소인 사이공강 크리즈 디너를 먹기 위하여 호치민시내에서 유람선이 있는곳으로 차는 출발을 하였는데 역시나 시내에는 오토바이들로 가득차 있었다. 사이공강은 호치민의외곽을 끼고 흐르는 강으로 호치민의 4분의3이 이강과 맞닿아 있다 동남아시아의 젓줄인 매콩강의 지류이며, 과거에는 죽음과 절망의 땅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약속의 땅으로 호치민의 역동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호치민의 대표 강이다 25년전에 20대에 보았던 미스사이공이라는 영화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꽃피운 베트남 여인 김과 미국장교 크리스이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를 생각하면서" 유람선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30분정도 지나서 유람선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저녁이라 날씨는 시원하였으며 마치 한강에 온듯한 느낌이였다 우리 일행은 유람선에 모두 탑승을 하였고 우리 예약한 자리에 모두 자리에 앉아 저녁을 기다리는데 유람선안에는 우리일행 외에도 미국인등 여러 나라 사람들로 저녁만찬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드럼과 함께 출항을 시작해야 음식을 먹을수 있었는데 뷔페음식이라 한번 떨어지면 다시 음식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안내원에 설명때문이지 전투적으로 뷔페에 음식을 담고 있었다. 비로소 베트남 4일차에 베트남 특유의 음식을 맛볼수 있었다 그동안 한국에서 자주 맛보았던 베트남 쌀국수등 현지식을 먹으면서 사이공강의 주변인 호치민시의 야경을 구경하였는데 낮에 보았던 도시와는 달리 매우 화려해보였다. 서울에 살지만 한강유람선을 타지 않았던 나로서는 한국의 야경과 직접 비교는 할수 없었지만 호치민 시의 야경도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 크리즈디너식사 동안 무대에서는 베트남 전통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흥을 돋구는 연주를 하였으며 여자 가수가 한국노래 노사연의 만남과 한국노래를 몇곡 불러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의 높은위상을 확인하게되어 매우 뿌듯하였다. 디너후에 2층으로 올라가니 야외전경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대원들은 사진을 찍는등 사이공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구경할수 있었다. 다시 호텔로 돌아와 다음달의 일정을 위해 잠을 청하였다



사이공강의 야경



식사전 미팅



와이프와 함께 저녁

○ 메콩강지역 민속마을 체험(2019.4.27.(토), 09:00~13:00)-5일차(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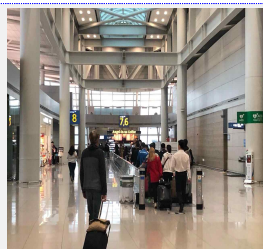
-미토지역 메콩강지역 민속마을 체험

-메콩강 지역의 유니콘섬 쪽배체험

· 베트남의 마지막날 조식을 마치고 호치민에서 2시간 정도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미토지역의 메콩강에 도착하였다. 우리의 목적지는 유니콘섬의 민속마을이었다. 큰배로 20분정도 타고 가서 도착하였다. 메콩강은 중국의 티벳에서 발원하여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강으로 강길이만 4,020km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최고의 강이다. 어릴적 보았던 머나먼정글이라는 영화를 생각나게 했다. 그래서 멜론으로 머나먼정글 주제음악 페인트인블랙(Paint in Black)음악을 틀어보았다 음악이란 예전추억을 되살리는 묘한 힘이 있는듯하다 우리의 목적지는 유니콘섬의 민속마을이었다. 큰배로 20분정도 타고가서 도착하였다. 베트남 현지인의 설명에 따라 강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약간 흙탕물처럼 보였는데 가이드는 1급수로 깨끗하다고 계속 말을 하였다. 처음 도착한 지역은 민속마을로 전통옷을 입고 춤을 추고 민속악기로 우리나라 아리랑도 연주하였다. 우리 일행은 아리랑을 함께 부르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은 쪽배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쪽배에는 앞에 뒤에 2명이 타고있었으며, 4명 총6명이 탑승을 하였는데 주의사항은 손을 바깥쪽에 두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후 그말을 이해할수 있었다. 그이유는 쪽배들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손이 다칠수 있기 때문이다. 배를 앞에서 노를 젓는 분은 60대후반의 노인으로 매우 능숙하게 배를 저었는데 팀을 받기 위해 땀을 열심히 닦는 것이었다.1달러 팀을 추가로 주었다. 점심은 엘리펀트 피쉬인 미토지역의 대표요리였다. 코끼리처럼 생겼다해서 불현직 이름인듯하다. 점심을 마치고 잠깐 커피를 마셨는데 베트남을 한국처럼 아메리카노는 없었다 나는 약간 달달한 커피를 주문을 하였다. 잠시후 6세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복권같은 걸 팔려고 나에게 왔는데 나는 외면하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베트남을 인구에 비하여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노인과 아이들이 복권을 판다는 것이었다. 자칭 베트남에서는 만수라 농담으로 말을 했던 내가 그 어린아이의 복권을 사주지 못한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였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코코넛 음료로 갈증을 해소하였다.



메콩강에 대한 가이드 설명



쪽배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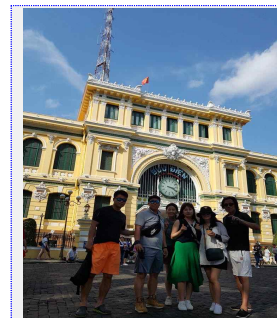
엘리펀트 피시 식사

○ 호치민우체국, 전쟁기념관 방문 (2019.4.26.(금), 13:00~17:00)-5일차(오후)

-호치민우체국, 노트담성당 방문

-호치민 전쟁기념관 방문

· 미토에서 점심을 마치고 다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호치민으로 향하였다. 목적지는 우체국과 노트담성당 그리고 전쟁기념관이다. 베트남전쟁기념관이라는 이곳은 미국과의 전쟁을 이후 통일을 이룬 1975년 9월에 개장,당시에는 미국 전쟁 범죄 박물관으로 불리다가,최근 관광객 밀려들자 전쟁기념관으로 개명되어 현재는 베트남 호치민의 최고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한다 또한 가이드의 말로는 베트남은 관광서를 방문할때는 미리 공문으로 사전에 보내야만 방문이 허락된다는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갑자기 방문해도 소방서 견학을 해주는 문화와 달리 철저하게 관광서를 유지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호치민 우체국 및 성당 등을 이동하면서 5일 동안 베트남 여행동안 비가 한번도 오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약간의 비가 내렸는데 우리가 우체국에 도착하였을때에는 비가 그치고 말았다. 우체국 건물과 바로 맞은편의 노트담성당은 프랑스가 건축해서 그런지 유럽풍의 건축물로 굉장히 멋스러웠다. 우체국안쪽에는 기념품을 파는 가게이 많았고 우리는 빠듯한 일정으로 인하여 우체국에 대한 견학은 많이 하지 못하는 못하였으며, 바로 옆에 위치한 노트담 성당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근처에 있는 전쟁기념관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과 비교를 하면 매우 작은 규모였다.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강대국의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는듯하다. 전쟁기념관에는 베트남전쟁 당시의 비행기와 탱크등이 전시가 되어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라 견학하는 동안 맘은 그리 편하지는 않았다. 우리 일행은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저녁을 먹기 위하여 한인들이 많이 산뜻한 곳으로 이동하여 저녁을 먹었는데 삼겹살이 메인 요리였다. 베트남에서 먹은 마지막 식사였다.



호치민우체국에서



노트담성당



전쟁기념관에서

○ 호치민 공항 도착 (2019.4.27.(토), 01:05~4.28(일)07:10)-5,6일차

- 호치민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 베트남호치민원정대란 이름으로 출발한 이번연수는 제24회KBS119상 수상자와 그리고 배우자들이 함께 떠난 연수였다. 매년 KBS 및 동부화재에서 후원하고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상은 전국 17개 지역 21명의 수상자들이 함께 한 연수였다 즉 민과 관이 함께한 여행이었다 사실 연수이면서 그동안 각 지역에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각 지역의 우수소방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연수이기도 하다. 베트남이라는 우리와 매우 가까운 나라로의 여행이기도 하면서 우리와 매우 정서적으로 비슷한 나라로의 여행이라 매우 기대가 큰 여행였다. 마지막날이란 연수의 아쉬움을 뒤로한채 우리 일행은 호치민 공항에 도착하여 인천행 비행기로 발길을 돌렸다. 5시30분간의 비행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시차가 2시간이라 7시 10분정도 도착하였다. 처음 베트남에 갔을때에는 2시간 정도 이익을 본듯했으나. 돌아오는 길은 2시간 손해본듯한 느낌이었으며. 인천의 날씨는 4월말이라 약간 쌀쌀한 날씨였다. 각자 이번여행의 아쉬움을 뒤로한채 기념사진 촬영후 인사를 나누면서 여행을 마무리하였다.



○ 연수를 마치며

· 더운나라로의 여행이라 옷이 가벼워 배우자와 함께라도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던 베트남 여행이었지만 우리부부를 포함한 수상자들은 본인의 짐가방보다 더 커다란 여행 가방을 하나씩을 더 준비해서 함께 떠나야 했다 “ 딸 친구들의 엄마들에게 부탁하여 옷과 문방구를 준비하면서 혹시 아이들이 새옷이 아니라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옷만 캐리어에 챙겨 넣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베트남 구찌 고아원 아이들이 너무 좋아 하였으며, 우리 수상자 일행들은 경쟁을 하듯이 모두 좋은 옷들과 문구류들을 준비하여 선물을 해주었다. 어떤 부부는 요즘 유행하는 미니선풍기까지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었는데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 마음이 역시 상을 탄 직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베트남 문화탐방. 단순한 해외문화 탐방이 아닌, 봉사활동을 함께 할수 있어 더 의미 있는 현장 연수 활동이었던 것 같다. 또한 요즘 뜨고 있는 동남아의 나라 베트남, 세계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국력 그리고 호치민 시내의 거리거리 가득채워진 오토바이들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베트남의 모습이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이 1명, 많아야 2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이게 보편적이다. 나도 6학년 딸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이번 고아원 봉사활동동안에 아이들을 보면서 좀 맘이 아프기도 했다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을 보면서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비록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수 있는 119대원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 □ 연수내용 및 시사점

### 연수 1 : 고찌고아원 방문

#### 연수 목적

- ◆ 한국119대원의 베트남에서의 봉사활동
- ◆ 의류,신발, 학용품 전달등으로 사랑실천

#### 개요

- 일 시 : 2019. 4. 24.(수) 09:00~13:00
- 장 소 : 호찌민 고찌고아원
- 내 용
  - 호찌민 구찌고아원 방문 의류 및 문구류 전달
  -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축구 및 풍선아트등 함께 놀아주기

봉사자 소방청 소방령조광식 등 119수상자 등 38명

#### 봉사내용

##### ◆ 구찌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

- 119대원이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를 하기 위하여 풍선아트, 재기차기, 축구등 자신이 자신있는 종목을 각자 정하여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 21명의 각 시도의 대표 소방관들이 각자의 캐리어와 박스로 고아원에 선물할 여름옷, 학용품, 미니선풍기들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맞는 옷도 입혀주고 또한 함께 놀아주기를 함으로써 짧은 시간이지만 봉사활동을 통하여 119대원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좋게 하고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됨

## □ 시사점

- 국도가 좁고 길게 분포되어 대륙의 길목에 있어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 바로 베트남과 한국이다 사실 베트남 연수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호찌민 연수를 계기로 베트남이란 나라를 다시 알게 되었으며 베트남과 한국이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걸 짧은 4박 6일의 여행이지만 알게 되었다. 한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주의 국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베크공으로 대표되는 월맹의 게릴라 전술로 인해 월맹군이 마치 악당들처럼 묘사되어 있고 미국과 한국군의 전투병 과병이 정당화되던게 얼마전까지 일이었다. 여행중 어떤 부부의 대화에서도 알수 있듯이 미국은 좋은사람 베크공은 나쁜사람으로 인식이 될만큼 우리들은 미국의 영향으로 베트남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한 듯 했다. 우리가 방문한 도시는 베트남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쪽 지역에 위치함 호찌민이란 도시였으며, 수도는 아니지만 마치 서울처럼 경제가 발전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다 처음 도착한 호찌민 시내는 오토바이로 가득차 있었다. 또한 공항에 도착하자 우리나라 6월 정도의 날씨였지만 작년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워낙 더워서인지 생각보다는 덥지 않았던 것 같다.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예전부터 안남이라는 으름으로 불렸던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한자를 채택하고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자리잡았던 국가였지만 프랑스의 오랜 식민지 역사로 인해 서양문화의 흔적이 나라 곳곳에 남아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연수동안 호찌민우체국이나 노틀담 성당등이 프랑스 건축양식이 대표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베트남을 연수하기 전에 동남아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홍콩에 갔을 때 동남아 음식의 향신료 때문에 호텔에서 라면만 먹었던 기억)로 인하여 한국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열심히 먹었던 일. 실제로 베트남 쌀국수는 내입맛에 맞아 베트남 연수를 더욱 즐겁게 해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 직접 가서 겪어본 베트남은 생각보다 여행지로의 괜찮은 나라로 인식이 되었다. 저렴한 물가와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건축물과 유적지, 또 휴양을 즐길수 있는 고운 무래의 비치. 무이네의 사막 등 좋은 여행지로 충분히 자격을 갖춘 나라였다. 천원으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수 있는나라. 사막과 바다가 공존하는 무이네로의 여행은 한국에서 지친 나에게 충분한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수 있었다. 18년간의 소방공무원으로써 생활했던 나에게 이번 베트남 호찌민 원정대 연수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보호에 앞장설수 있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세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많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젊은세대가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부럽기도 하였다.

# 연수장면

## ◆ 역할분담

|                            |
|----------------------------|
| 제24회 KBS119상 수상자 해외봉사활동 계획 |
| 연수개요                       |
| 연수기간                       |
| 연수장소                       |
| 연수인원                       |
| 연수비용                       |
| 연수목적                       |
| 연수내용                       |
| 연수장소                       |
| 연수기간                       |
| 연수인원                       |
| 연수비용                       |
| 연수목적                       |
| 연수내용                       |

|               |          |                         |      |
|---------------|----------|-------------------------|------|
| 일부            | 담당       | 세부담당                    | 비고   |
| 총괄감독          | 소방청 주관직  | 총괄, 연수역 계획              |      |
| 인행보조          | 세우여행사    | 숙구급 2, 현지 호텔박스, 용역 등    |      |
| 기동용품 수집       | 수상자 진원   | 의류(하체), 신발, 안경 등        | 비밀요청 |
| 약품용품 기증       | 양승용      | 문구류 등 학용품세트(별도 포장)      | 비밀요청 |
| 의류기증          | 수상자 진원   | 소모품(안경, 손수건) 등          | 비밀요청 |
| 제기 전달         | 김중훈      | 20명 정도 분량               |      |
| 의류기증          | 양승용      | 100명 분량, 공기구입기 5개       |      |
| 연 구입          | 양승용      | 연 20개, 일해 20개           |      |
| 공기압축기 구입      | 양병근      | 20명 분량                  |      |
| 의류기증          | 양승용      | 20명 분량                  |      |
| 추가용품 포장       | 서진혁, 양승민 | 추가용품 공항에서 현지에서 포장(비밀요청) | 비밀요청 |
| 현지 포장         | 조지훈      | 추가용품(의류, 신발, 안경) 등      | 비밀요청 |
| 사전촬영          | 양승용      | 취재원, 현지에서 촬영(비밀요청)      | 비밀요청 |
| 환수역 담당        | 서진혁, 양승민 | 봉사활동 시 단체촬영시 환수역 열침     | 환수역  |
| 봉사활동시 조망용 카메라 | 김중훈      | 봉투 전달 등                 | 환수역  |
| 봉사활동시 총괄      | 김중훈      | 장착용, 정액적 부담, 모바일 부담     | 환수역  |
| 연말리기 총괄       | 양승용      | 요식, 김장용, 신발용            | 환수역  |
| 공기압축기 총괄      | 양승용      | 인동진 부담, 양승용 부담          | 환수역  |
| 숙구 총괄         | 조지훈      | 김중훈, 양승용, 양승민, 양승민      | 환수역  |
| 공기압축기 총괄      | 서진혁      | 서진혁, 양승민, 김중훈, 양승민, 양승민 | 환수역  |
| 의류기증          | 양승용      | 양승용, 양승민, 양승민, 양승민      | 환수역  |

사전 봉사 역할분담 계획(2019.4.10.)

봉사활동하기전 역할분담(2019.4.10)

## ◆ 출국 (인천) 도착 (호치민)



출발(2019.4.23., 수 인천공항)



도착(2019. 4.23, 수, 호치민중앙공항)

## ◆ 구찌 고아원방문



구찌고아원 기념촬영



구찌고아원 봉사활동

# 연수장면

## ◆ 중앙 우체국 방문



중앙우체국 기념촬영



중앙우체국 체험

## ◆ 노틀담 성당 방문



노틀담성당 기념촬영



노틀담성당 방문

## ◆ 전쟁 기념관 방문



전쟁기념관 기념촬영



전쟁기념관 기념촬영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내역 신고서

**<공무국외출장 개요>**

- 여행단명 : 공무국외출장(제24회 KBS119상 수상자 해외 현장시찰)
- 출장기간 : 2019. 04. 23(화) ~ 04.28(일), 4박 6일
- 출장장소 : 베트남 호치민, 무이네
- 출장인원 : 38명

상기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여행자별 적립내역>**

| 연번 | 소속             | 이름  | 기존<br>마일리지<br>(A) | 사용<br>마일리지<br>(B) | 신규<br>마일리지<br>(C) | 총계<br>(A-B<br>+C) |
|----|----------------|-----|-------------------|-------------------|-------------------|-------------------|
| 1  | 광진소방서<br>현장대응단 | 김종수 | 0                 | 0                 | 3,556             | 3,5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 05. 06.

작성자 김 종 수 (인)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내역 신고서

**<공무국외출장 개요>**

- 여행단명 : 공무국외출장(제24회 KBS119상 수상자 해외 현장시찰)
- 출장기간 : 2019. 04. 23(화) ~ 04.28(일), 4박 6일
- 출장장소 : 베트남 호치민, 무이네
- 출장인원 : 38명

상기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여행자별 적립내역>**

| 연번 | 소속            | 이름  | 기존<br>마일리지<br>(A) | 사용<br>마일리지<br>(B) | 신규<br>마일리지<br>(C) | 총계<br>(A-B<br>+C) |
|----|---------------|-----|-------------------|-------------------|-------------------|-------------------|
| 1  | 웅산소방서<br>후암센터 | 김종준 | 0                 | 0                 | 3,556             | 3,5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 05. 04.

작성자 김 종 준 (인)